

편입학제도, 이렇게 본다

현행 편입학제도는 중대한 결함이 많다

양 훈 모

중부대 경영학부 교수, 교무처장



1. 서론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전격적으로 확대 실시된 대학 편입학은 다음 해인 1996년도 1학기부터 전국의 80여 대학에서 약 25,000명의 인원을 편입생으로 모집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지만, 대학들에게는 예견치 못했던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편입학이라 함은 각 대학 학과의 입학 정원 중 해당 학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총장

의 재량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 편입의 유형으로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반 편입이라 함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의 1학년 이상 수료자 등이 4년제 대학의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사 편입이란 학사 학위 소지자가 정규 대학의 3학년에 편입하는 것으로, 개별 학과 혹은 개별 학년의 5~10%의 범위 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형태의 편입 학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 외에도 대학원에서도

편입제도가 도입·운영되어 편입학제도의 대
상과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본래 대학의 편입학제도는 대학에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및 전공
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기회
를 확대시키고,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대학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으로의 전
환을 유도할 동기를 유발시키려는 취지로
시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학의 제
반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서 전격적으로 확대된 편입학제도는 그간
짧은 시행 기간 동안에도 많은 역기능을 초
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대학 편입학의
문제점들이 여러 대학에서 제기되었고 대중
매체나 각종 토론, 회의에서 뜨거운 논쟁거
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 행정당국
은 대학의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편입학제
도를 날로 확대하고 있어 이 제도로 인해
초래된 역효과와 부작용은 개선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교육 여건
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설부른 시장
논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
기 어려운 현행 대학 편입학제도의 부작용
과 폐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캠퍼스
는 더욱 열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도와는 달리 대학 경쟁력 제
고는 고사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대학으로부터 경쟁력의 기반마저 앗아갈
소지가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과 같

은 우리나라의 편입학제도는 다각도의 새로
운 분석과 접근, 정확한 이해를 통해 새로
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학 편입학제도의 문제점

1)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의 양극화

1998학년도 제1학기 서울 소재 대학 편
입학 결과를 보면, 우선 경제 위기의 영향
으로 취업 전망에 따라 학과간 경쟁률의 차
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편입학 선호가 절대적으로
높지만 대조적으로 지방대학에서는 편입 모
집 인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판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학기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22개
대학(지방 캠퍼스 제외)의 편입학 모집 인
원은 모두 5,462명이었으나, 지원자는 모집
인원의 10배가 넘는 59,216명에 달해 평균
10.8 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
다. 이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제2의 치열한
대학 입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지방대학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다. 수도권, 그 중 서울 소재 대학에 편입
생들이 크게 몰린 반면, 대부분의 지방대학
에서는 평균 1 대 1을 겨우 웃돌거나 미달
된 곳이 대부분이었다.¹⁾ 특히 IMF의 한파
로 대학생들의 휴학이 급증하면서 대학간에

1) 이런 현상이 심각한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편입생으로 모집하고 있다. 조선일
보(1998/01/17)에 따르면, 전북의 S대는 '98년 1학기 편입생으로 모집해야 할 결원이 신입생 모집 정원의 58.7
%인 1,4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주의 J대에서는 편입생 모집 인원이 1,121명이나 되었지만
781명만을 충원하였고, 부산의 D대도 2,200명의 편입 모집 인원의 70%밖에 채우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들은 대개 편입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결원을 충원하는 '편입 도미노 현상'으로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출신의 지방대 학생들이 하숙비 등의 제반 학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굳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학하려는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외의 측면에서도 편입학 도미노 현상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대개의 편입학 실태를 보면, 하위권 대학에서 중위권 대학으로 그리고 다시 중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대학간·학과간 편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 사회 부조리의 하나로 지목되는 대학간 서열화가 편입을 통해 다시 한번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의 양극화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 양극화의 구도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결원을 충원하는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대학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²⁾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성장을 저해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학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과연 지방대학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간 균형적 성장·발전에 기여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이원구조화 현상

현행 편입학제도는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동시에 또다른 차원의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국·공립 대학과는 달리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편입학제도의 역기능으로 초래된 극심한 폐해를 받고 있다.

국·공립대학에서는 휴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생 결원이 심각하더라도 안정된 예산 체계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교 운영, 학사 행정, 교육 및 연구가 저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립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증가만큼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³⁾ 이런 현상은 IMF의 한파와 더불어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재단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 학교 운영, 학사 행정, 교육 및 연구의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맞게 된다.

이들 학교 당국은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애로를 겪게 되고, 부족한 학생을 보충하기 위해 1년 내내 편입학에 매달려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2) 지방대학들은 편입으로 빠져 나간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평균 편입학 경쟁률이 10:1을 넘고 있으며, 인기 학과에서는 100:1에 달하는 경쟁을 보이는 곳도 많다.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편입학 인원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이다.

3) 대전 지역의 사립대학(D대, M대, B대, H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97학년도 제2학기의 편입학 대상 인원 1,306명의 불과 45.8%인 598명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일보, '97/08/25).

몰두해야 할 교수들은 휴학생이나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생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편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매달리는 바람에 교육 및 연구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공립대학들도 편입학을 시행하고 있는데,⁴⁾ 이 경우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이들 대학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견된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극히 저조한 사립대학, 그 중에서도 지방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은 다시 한번 학생 유출로 인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지방의 많은 사립대학들도 편입학으로 인한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특성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등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진대 지방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자구 노력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고, 국제화는 커녕 국내적인 경쟁력의 발판을 갖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약한 지방 사립대학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교육 정책이라는 당연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3)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난 가중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부족,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 부족, 사회적 지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 사립대학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대학종합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대학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돈을 차입하게 되었다. 물론 이 때에도

정부 지원은 극히 저조할 뿐이었다.

이런 즈음에 밀려온 IMF 위기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부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방 사립대학들에게도 부도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예컨대,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통한 교세 확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학 부도의 경우는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다수의 지방 사립대학이 우려하는 대학 파탄의 가능성은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심각한 고려와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이들 대다수 지방 사립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의 근원 중 하나가 정부의 미숙한 대학 정책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각 대학 당국과 구성원들 사이에 대학 파탄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대학 편입학제도라는 것이다. 본래 대학 편입학 제도는 편입 대상의 확대를 통해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위권 대학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의 연속적인 학생 이동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 결국 서울로의 학생 이동을 예견하지 못하고 실시된 기존의 편입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의 계층화된 대학 구조 아래에서 연약한 경쟁 기반을 가진 대학들, 예컨대 전문대학과 지방의 사립대학들에 학생 결원의 심화와 이들 결원 학생들의 충원 부족에 기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4) '97년도 제1학기만 해도 KAIST를 비롯하여 11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편입학을 실시하였지만, 최근에는 대다수의 국·공립대학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있으며, 이미 일부의 대학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고 알려진 실정이다.

4) 대학 학사행정의 어려움 가중

1998학년도 제1학기에 일반 편입만 보더라도 전국 126개 대학에서 36,483명의 편입 모집 인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수는 그 4배에 가까운 131,388명에 이르고 있다.⁵⁾ 그리고 IMF 한파로 대학생들의 일반 휴학, 군 휴학까지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게다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부의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편입생 선발 인원을 늘리고 있어 편입에 따른 학생 이동은 극심해질 전망이다.⁶⁾

이런 과정에서 대학들은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의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편입에 필요한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느라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들은 편입에 따른 각종 시험과 편입생 입학 사정에 매달려 대학 입시와 더불어 연중 무휴로 이중의 입시 업무를 치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편입학으로 들어와서 등록금까지 낸 학생이 다른 대학의 편입학에 합격하면 이들의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편입학에 의한 학생 이동으로 인해 대학들은 예산 계

획 및 집행에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학생 유출로 강의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과 담당 교수들은 효과적으로 교육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편입생을 유치하는 대학에서도 일어난다. 현재의 편입학 실태를 보면, 각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전공마저 무시하고 편입생을 뽑고 있어 인문계열을 다니다가 취업이 유리한 공학계열로 편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편입해 온 학생들의 학업 관리, 이들을 위한 특별 강좌의 개설 등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편입생들이 학업상의 문제로 인해 중도 하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학 편입제도 아래에서는 전문대학 혹은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편입학을 위해 거쳐가야 할 과정 혹은 수단으로 전략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이들 대학의 학사행정은 학생들의 교육,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편입학 행정에 불모로 잡힌 셈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5) 지속적·안정적 교육 진행의 어려움

편입학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특히 2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의 전공 계열과 무관하게 편입생을 받고 있다.⁷⁾ 이런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

5) 김영한국대학편입사, 『월간 편입뉴스』, 통권 49호, 1998.

6) 지난 1년 한 해만 하더라도 27,000여 명의 학생들이 편입학을 통해 학교를 옮겼으며, 금년부터는 편입학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8년 상반기만 해도 약 40,000명 이상의 편입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1998/01/17).

7) 대부분의 대학에서 2학년 편입 대상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4년제 대학의 1학년 이상 수료자(약 36학점 이상 취득자)이며, 이들은 대개 계열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3학년 편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와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자(약 70학점 이상 취득자)이며 대개의 경우 동일 계열 혹은 동일 유사학과로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 대학들의 경쟁적 편입생 유치 전략으로 인해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마저 전공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 학생들도 이미 습득한 전공과 무관하게 편입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육 진행이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낭비가 되고 있다.

또한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과의 전공 공부를 등한시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편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기준으로 영어, 논술(국어), 수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과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실 학원 등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므로 제2의 대학 입시나 다름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6) 균형적 학문 발전의 저해

지금과 같은 편입학제도, 그 중 일반 편입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의 학문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편입의 경우에는 소위 비인기 학과에서 인기 학과로의 학생 이동이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과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편입학으로 유출되지만, 이들 학과로 편입하려는 학생은 적기 때문에 만성적인 학생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학과의 경쟁력 제고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학과 운영마저 어렵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2003년경부터 전국 대학의 정원보다 학생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대학들은 전례 없던 학생 확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구조적으로 연약한 우리나라의 지방대학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편입학 정책이다.

지금의 편입학제도는 그 목적과 방향성에서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방의 대학들은 편입으로 인한 과도한 학생 유출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 지원에 앞장서야 할 학교 당국은 결원 학생의 보충에 모든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수들은 연구보다는 학생의 이탈 방지와 결원 학생의 보충에 매달려야 하며, 학생들은 전공 학과의 공부보다는 영어, 수학책을 들고 편입 학원을 통해 이 대학 저 대학을 기웃거리고 있다.

현실이 이런진대 지방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지방 사립대학의 발전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간 서열화는 더욱 조장되고 있다. 지방의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그리고 결국은 서울로 흘러 들어간다. 서울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지방의 사립대학에서는 가르칠 학생들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현행 편입학제도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채 갖추지 못한 지방의 사립대학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과연 이것이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정책이란 말인가? 현행 대학 편입학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

양훈모/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능률본부 연구원,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직·연수부장 등을 거쳐 현재는 중부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집단 의사결정 기법들의 효율성 비교 연구",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의 조직 효과성 차이 분석" 외 다수를 발표했다.